

MMPI 성격장애척도와 16PF 검사 구조분석 : 성격장애척도 타당화 예비연구

박병관 · 김진영 · 노주선 · 안창일* · 신동균** · 박영숙***

*고려대 심리학과 **고려대 의과대학 ***이화여대 의과대학

MMPI 성격장애척도(이하 MPDS라 함)를 경험/합리적 방식으로 새로 개발하여 정상대학생들과 정신과 환자집단으로부터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본 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해봄으로써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새로 개발된 MPDS는 정상집단 뿐만 아니라 환자집단에서도 높은 내적일치도와 안정된 심리 측정적 특성을 보이므로 성격장애 진단 척도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MWB척도의 요인구조와 유사하여 구성타당도도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성격검사인 16PF와 많은 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정상인의 성격유형척도로서도 효용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근 들어 DSM-III 진단분류체계에서 성격장애를 임상증상과 독립된 진단분류로 분리한 이후 심리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분야에서도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APA, 1980). 또한 DSM-III-R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독립된 분류 축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치료분야에서는 일시적인 임상증상이 아닌 환자의 내적 자기도식에 의해 장기적으로 인생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치료등이 적용되고 있다(APA, 1987; Beck A.T. & Freeman A., 1990).

이와같이 고조된 관심에 때를 맞추어 성격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많은 구조화된 면접법들이 도입되었다(Jacobsberg, Goldsmith, Widiger, Frances, 1989). 구조 면접들의 예를 살펴보면

DSM-III나 DSM-III-R 성격장애진단을 위한 구조면접과 같이 종합적인 면접법(Spitzer R, Williams J, 1985; Pfohl B, Stangl D, Zimmerman M, 1981)이 있고 경계선이나 정신분열형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각각을 알아보기 위한 개별면접법들(Grunderson J, Kolb J, Austin V, 1981; Baron M, Asnis L, Grunen R, 1981; Hare R, 1980)도 있어 성격장애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성격장애를 진단·평가하는 객관적 심리검사들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Millon의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Millon, 1982; 이하 MCMI라 함.)와 MMPI의 MWB성격장애척도(Morey L, Waugh M, Blashfield R, 1985;

이하 MWB척도라 함.)가 있다. 이 두 검사는 모두 합리/경험적 척도구성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즉 임상전문가가 각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문항을 먼저 예비문항으로 선발하고 그 후 통계적인 문항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문항을 제외시켜 척도를 개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척도구성 방식은 MMPI의 경험적 척도구성 방식을 비판한 Wiggins(1966)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Wiggins는 MMPI 임상척도의 내적일치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특정집단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였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집단변별력만을 고려하여 제작한 척도에는 내적타당도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척도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먼저 문항을 선발하고 그 후 경험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문항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척도 구성방식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Retzlaff, Gibertini, 1987). 즉 Millon의 MCMI는 그의 이론을 기초로 문항을 선발하여 척도를 구성하였으나 여러 집단에서 MCMI의 요인 구조를 분석한 후속 연구에서 성격장애이론과 일치하는 요인을 발견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에서도 결과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면 MWB척도의 외적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했던 예비 연구에서 성격장애집단의 분포와 사례수로 인해 5개 척도만을 검증해 본 결과 3개 척도(경계선, 반사회적, 의존적 성격장애 척도)에서는 정상집단및 기타 성격장애 집단과의 변별이 가능하였다 (Morey L.C., Blashfield R.K., Webb W.W., 1988). 그러나 연기성 성격장애척도에서는 정상인집단과의 변별이, 수동공격성 성격장애척도에서는 기타 성격장애 집단과의 변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MWB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런 변별실패는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 (Morey L, Waugh M, Blashfield R,

1985). MWB척도는 제작할 당시에 문항분석을 정신과 환자들만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상집단의 반응경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즉 각 척도에 대한 정상집단의 평균값이 얼마나 높은 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합리적으로 선발한 문항 중 부적합한 문항을 경험적 통계분석을 통해 제외시켜 나감으로써 척도문항의 수가 너무 적었다. 따라서 정상집단이나 비교집단의 응답경향이 집단변별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 집단변별을 할 수 없었던 척도들 중 연기성 성격장애척도는 문항의 갯수(20개)에 비해 정상인의 평균(11.78)이 매우 높았고, 수동공격성 성격장애척도는 문항의 갯수가 14개로 전체 척도들의 갯수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특정환자집단을 변별·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집단변별력을 높이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집단의 반응 경향도 고려하고 적절한 문항의 갯수도 확보할 수 있는 경험적 방식이 더 비중있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으로 예비문항을 선발하고 경험적 통계분석을 통해 부적합한 문항을 제외시켜나가는 합리/경험적 방식과는 달리, 경험/합리적 방식으로 성격장애척도(본 척도를 이하 MPDS라 함.)를 만들고자 한다. 즉 합리적으로 먼저 예비문항을 선발하고 이 예비문항의 척도와 다른 문항들의 상관을 계산하여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을 한번 더 추가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문항의 갯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적합한 문항을 제외시켜 나갈 때에도 문항적격도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응답경향도 고려하였다. 다시 말하면 변별하고자 하는 집단이 성격장애집단이므로 정상집단의 응답방향을 고려하여 정상인이 채점방향으로 쉽게 응답하지 않는 문항들로 척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이종성 역, 1985).

본 연구에서 신판 MMPI를 이용하여 MPDS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우리 나라의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MMPI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므로 새로운 검사 보다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검사에서 추가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피검사자의 이중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MPDS의 활용이 최근에 새로 개정된 신판 MMPI(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의 활용범위를 확장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임상이나 상담 장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인 MMPI는 인성검사(Personality Inventory)라는 명칭과는 달리 제작 당시 이탈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의 임상적 증상을 변별·진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McKinley & hathaway, 1940). 그러므로 정상인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자 MMPI를 실시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이런 이유로 MMPI의 활용범위가 제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MMPI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집단에 맞게 임상 프로파일을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MMPI 자체는 인성검사란 명칭에 걸맞는 척도로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상척도 중 대부분의 척도가 검사 실시 당시의 일시적인 정서상태나 증상 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적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행동경향성이나 사고양식으로 정의되는 성격을 측정한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MMPI가 일반성격검사와 공유하고 있는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MMPI와 16성격요인검사(이하 16PF라 함)를 함께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병리요인, 불안-자아강도요인, 내-외향 요인, 강정성요인, 의존-자립요인 등이 확인되었으나 MMPI는 주로 병리요인에 한정되었던 것이다(Lorr M., Nerviano V.J. & Myhill, J., 1985). 따라서 MMPI 해석체계의 다양화를 통한 활용범위 확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성격장애척도라고 해도 일반성격검사의 요인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정상인이든 환자인 상관없이 피검사자의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MPI의 MPDS가 성격장애집단의 변별 뿐만 아니라 정상인의 성격유형 및 정신과환자의 병전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MWB척도를 참조하여 신판 MMPI의 MPDS를 경험/합리적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신뢰도 및 심리측정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MPDS의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고 또한 16PF(염태호, 김정규, 1990)와 공유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성격척도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I

새로 구성하게 될 MPDS가 정상집단이든 환자 집단이든 상관없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항분석을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구성된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이 집단간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내적일치도에 큰 감소변화가 없어야 하며 정신과 환자들이 내재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각 척도의 평균이 다소 상승하겠으나 집단변별력을 손상시킬 만큼의 심한 상승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MPDS의 하부척도는 DSM-III-R에 분류에 따라 11개의 성격장애척도로 하였다(APA, 1987).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연기성 성격장애 척도(이하 HST척도라 함), 자기에적 성격장애 척도(이하 NAR척도라 함), 경계선적 성격장애 척도(이하 BDL 척도라 함), 반사회적 성격장애 척도(이하 ANT척도라 함), 의존성격장애 척도(이하 DEP척도라 함), 강박성격장애 척도(이하 CPS척도라 함), 수동공격 성격장애 척도(이하 PAG척도라 함), 편집성 성격장애 척도(이하 PAR척도라 함),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척도(이하 STY척도라 함),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이하 AVD척도라 함),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척도(이하 SZD척도라 함)가 있다.

방법 및 절차

MPDS 구성을 위한 방법 및 절차 : MPDS를 경험/합리적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대학생 150명(남: 79명; 여: 71명; 평균연령: 20.5세)의 신관 MMPI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예비척도는 신관 MMPI(김영환 등, 1989) 566문항 중 MWB척도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하였다(Morey 등, 1985). 각 척도 중 일차 문항분석에서 전체척도점수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문항들을 우선 제외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비척도로 채점된 총점과 신관 MMPI 전체문항들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유의도수준 $p=0.01$ 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문항 중 다른 성격장애척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추가된 문항들도 정상 집단의 반응경향성으로 인한 변별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문항의 난이도가 낮은 문항은 다시 제외시켰다. 즉 채점방향을 응답을 1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점수화하여 정상집단에서 얻어진 문항의 평균이 0.55이상 되는 쉬운 문항들을 다시 제외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추가 문항들과 논리적 방식으로 선발한 기존의 문항을 합하여 다시 문항 분석을 하여 최종척도를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험/합리적 방식으로 구성된 척도들을 6명의 임상심리전공 대학원생이 판단하여 이들 중 2명 이상이 각 척도에 적절치 못하다고 응답한 문항을 다시 제외시켰다. 또한 MMPI의 검사-재검사 척도(일명 TR척도)에 포함되는 문항들은 중복 문항이므로 중복된 문항은 앞에 있는 문항을 제외시켜 최종척도를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안정성 확인을 위한 연구절차 : 대학생 279명(남: 163; 여: 116, 평균연령: 21.4세)에게 실시한 MMPI자료를 이용하였다. 대학생집단에서 문항분석하여 구성한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이 환자집단에서도 안정적인 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 환자들의 MMPI 응답을 분

석하였다. 남자환자 118명과 여자환자 135명 총 25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평균연령은 남녀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평균연령이 32.33(14.22)세였다. 각 집단의 반응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내적일치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의 α 를 계산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변량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모든 응답을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 자료나 무응답이 30개 이상인 자료 또는 무선응답 판별식에서 무선응답인 것으로 판정된 자료는 모두 제외시켰다(조선미, 박병관, 안창일, 신동균, 1990)

결과 및 논의

위 절차를 통해 최종문항으로 선발된 각 척도의 문항 갯수는 HST척도가 24개, NAR척도가 28개, BDL척도가 30개, ANT척도는 26개, DEP척도는 25개, CPS척도는 23개, PAG척도는 27개, PAR척도는 46개, STY척도는 49개, AVD척도는 42개, SZD척도는 24개였으며 총 344개였다. 가장 적은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는 CPS척도로 23개였는데 MWB척도의 14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항번호와 채점방향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각 척도를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얻어낸 심리측정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범위는 0.894(STY척도)~0.732(ANT척도)였다. 따라서 신관 MMPI 임상척도의 내적일치도 범위인 0.84~0.52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김영환 등, 1989). 또한 MWB척도의 내적일치도와 비교해 볼 때도 MWB의 범위인 0.859~0.712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각 척도의 평균을 문항 수로 나누어 봤을 때 50%를 넘는 것은 없었다. ANOVA 분석 결과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척도는 ANT, DEP, PAR 척도였다.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차

이를 보인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별도로 제시하였다.

본 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이 환자집단에서도 안정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과 환자들의 MMPI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때의 내적일치도는 0.897~0.714의 범위를 보여 정상대학생에 비해 큰 감소가 없어 신뢰도가 집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신과 환자의 반응경향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균은 대학생집단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환자들의

표 1. 정상대학생 집단의 MPDS 심리측정 결과

Scale	No. Items	Cronbach's α	Total* Mean(SD)	Male** Mean(SD)	Female** Mean(SD)
HST	24	.817	10.673(4.975)	_____	_____
NAR	28	.818	13.907(5.526)	_____	_____
BDL	30	.817	13.858(5.947)	_____	_____
ANT	26	.732	10.046(3.990)	10.749(4.481)	9.319(3.382)
DEP	25	.825	10.485(5.186)	9.828(4.888)	11.397(5.453)
CPS	23	.790	10.506(4.852)	_____	_____
PAG	27	.846	12.264(5.773)	_____	_____
PAR	46	.892	13.058(7.878)	11.724(6.802)	14.293(8.689)
STY	49	.894	15.621(8.902)	_____	_____
AVD	42	.883	20.948(8.382)	_____	_____
SZD	24	.808	9.054(4.714)	_____	_____

*사례수 : 279명 (남 : 163, 여 : 116)

**남녀평균간에 통계적 차이 ($p < 0.05$)가 있으면 별도 수치를 제시함.

표 2. 정신과환자 집단의 MPDS 심리측정 결과

Scale	No. Items	Cronbach's α	Total* Mean(SD)	Male** Mean(SD)	Female** Mean(SD)
HST	24	.834	10.398(5.252)	_____	_____
NAR	28	.829	13.208(5.783)	_____	_____
BDL	30	.829	15.000(6.209)	_____	_____
ANT	26	.714	9.983(4.077)	_____	_____
DEP	25	.806	12.347(5.148)	_____	_____
CPS	23	.794	12.441(4.715)	_____	_____
PAG	27	.837	14.784(5.745)	_____	_____
PAR	46	.897	17.188(8.647)	15.856(8.559)	18.237(8.626)
STY	49	.891	21.098(9.508)	_____	_____
AVD	42	.883	21.920(8.545)	_____	_____
SZD	24	.792	10.424(4.838)	_____	_____

*사례수 : 253명 (남 : 118, 여 : 135)

**남녀평균간에 통계적 차이 ($p < 0.05$)가 있으면 별도 수치를 제시함.

내재적 성격장애를 고려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만 평균을 문항수로 나누어 구한 백분율이 50%를 넘는 척도가 CPS척도와 PAG척도, 그리고 AVD척도로 모두 3개 척도였다. MWB 척도에서 2개였던 것에 비해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남녀 간에 $P < 0.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척도로 PAR척도 뿐이었다. 정상대학생집단과 정신과환자집단에서 얻은 심리측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집단에 상관없이 척도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연 구 II

MPDS의 요인구조를 확인함으로써 MPDS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일반성격으로서 대표적인 16PF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성격요인을 MPDS가 어느정도 포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및 절차

남녀 대학생 92명(남: 72, 여: 22, 평균연령: 21.3세)에게 실험 MMPI를 실시하고 2주 후에 16PF를 실시하였다. MPDS의 요인분석에서는 주성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직교회전시켰다. 그리고 MPDS와 16PF의 16개 일차요인들을 다함께 요인분석하였으며 절차는 위의 방법과 동일하였다. 또한 16PF 이차요인 6개와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MPDS의 11개 척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추출된 요인은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할 때 2개의 요인으로 나왔으나 분석에 투입되는 변인의 수가 적으므로 설명변량이나 scree test(Cattell, 1966)를 고려하여 3개의 요인으로 결정하였다. 요인분

표3. MPDS의 요인구조^a

척도	1요인	2요인	3요인
HST	.16	-.93*	-.23
NAR	.09	-.79*	-.53*
BDL	.88*	-.03	.14
ANT	.77*	-.05	-.03
DEP	.38*	.36*	.80*
CPS	.84*	.03	.22
PAG	.60*	.43*	.56*
PAR	.88*	.19	.22
STY	.77*	.51*	.25
AVD	.30*	.79*	.45*
SZD	.25	.93*	-.02
아이겐값	5.97	2.24	0.77
설명변량(%)	54.5	20.4	6.90

^a사례수: 94명(남: 72, 여: 22)

*부하량이 0.30이상임

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제1요인은 BDL과 PAR척도에 가장 큰 부하량이 걸려 있어 MWB의 제2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Morey 등, 1985). 제2요인은 HST척도가 -.93으로 가장 큰 부적 부하량을 보였으며 양적부하량은 SZD척도가 가장 컸다. 이 요인은 MWB의 첫번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세번째 요인은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DEP척도에 가장 큰 부하가 있어 MWB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세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81.6%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들은 불안정성, 내-외향성, 의존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16PF의 일차요인과 MPDS를 함께 요인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표4에 제시하였다. 아이겐 값 1.0 이상의 요인이 7개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74.7%였다. 제1요인은 HST척도에 가장 높은 양적 부하량이 걸렸으며 SZD척도에 가장 큰 부적 부하량이 걸렸다. 이 요인은 Cattell과 Eber(1967)의 내-외향 차원과 유사하였다. MPDS와 16PF검사 모두 골고루 공유하는 요인이었다. 제2요인은 16PF 죄책감 요인과 MPDS의 PAR척도가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며 16PF의

불안요인과 유사하였다. 제3요인은 16PF의 강한 도덕성 척도와 강한 통제척도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며, MPDS의 ANT척도에 부적부하를 보여 초자아강도차원으로 생각되었다. 제4요인은 16PF의 불신감 척도에 높은 부하를 보여 불신요인으로 생각되었으며, 제5요인은 진보성, 지배성, ANT

척도에 높은 부하를 보인 진보성요인으로 나타났다. 제6요인은 자립성 척도에 높은 양적 부하가, DEP척도에 부적 부하가 걸려 의존-독립 차원으로 생각되었다. 제7요인은 16PF의 지능 척도에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였고 MPDS에는 높은 부하량을 보인 척도가 없었다. 이 요인은 지능과 연관된 요

표 4. MPDS와 16PF 일차요인의 요인분석^a

척도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5요인	6요인	7요인
HST	.91*	-.13	.07	-.04	.01	-.00	-.10
NAR	.82*	-.31*	.13	.13	-.14	.10	-.24
BDL	.12	.80*	-.13	-.10	.13	.11	-.12
ANT	.05	.43*	-.37*	-.21	.56*	.13	.05
DEP	-.47*	.55*	-.31*	.01	.12	-.30*	.26
CPS	-.22	.72*	-.16	.36*	.18	.04	.03
PAG	-.46*	.65*	-.26	-.06	.26	-.17	.16
PAR	-.23	.82*	-.10	.17	-.01	.09	-.19
STY	-.58*	.71*	-.19	.09	.11	.10	-.04
AVD	-.75*	.53*	-.08	.06	.09	-.08	.11
SZD	-.83*	.27	-.08	-.00	.07	.27	.00
A(온정성)	.63*	-.09	.11	.23	.09	-.24	.15
B(지능)	-.10	-.04	-.06	.08	-.01	.20	.88*
C(자아강도)	.68*	-.25	-.00	.36*	-.03	-.04	-.26
E(지배성)	.35*	.05	.35*	.56*	.30*	.02	.05
F(정열성)	.77*	.08	-.17	-.06	-.04	.14	.05
G(도덕성)	-.10	-.08	.88*	.10	.02	.06	-.10
H(대답성)	.68*	-.25	-.00	.36*	-.03	-.04	-.26
I(민감성)	.42*	.40*	.24	-.14	-.01	-.21	.12
L(불신감)	-.02	.03	.18	.81*	-.03	.05	.02
M(사변성)	.18	.48*	.27	.15	.10	.36*	-.39*
N(실리성)	.18	-.17	.54*	.40*	.19	-.25	.07
O(죄책감)	-.29	.83*	-.12	-.08	-.09	.00	.15
Q1(진보성)	-.08	.11	.05	.20	.88*	.10	-.06
Q2(자립성)	-.11	.01	.05	.02	.12	.84*	.20
Q3(통제력)	.19	-.13	.82*	.14	-.20	.12	-.03
Q4(불안감)	-.23	.74*	.24	-.26	.14	-.08	-.02
아이겐값	9.11	3.35	2.68	1.54	1.35	1.11	1.03
설명변량	33.7%	12.4%	9.9%	5.7%	5.0%	4.1%	3.8%

^a 사례수 : 94명 (남 : 72, 여 : 22)

* 부하량이 0.30이상임

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능관련 요인을 제외한 6개의 요인을 MPDS와 16PF의 일차요인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변량의 71%를 설명하는 것이다.

16PF의 이차 요인과 MPDS 하위척도를 함께 요인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아이겐 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설명변량은 75.4%였다. 제1요인은 MPDS의 HST척도에 가장 높은 부적 부하량이 걸려 있었고 SZD척도에 높은 양적부하가 걸렸으며 16PF의 외향성 척도에 높은 부적 부하가 걸렸다. 이는 앞에서 나타난 내-외향차원으로 생각된다. 제2요인은 BDL척도와 PAR척도 그리고 CPS척도에 높은 양적인 부하가 걸렸으며 16PF의 ANX척도에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제2요인은 불안요인과 유사하

다. 제3요인은 16PF의 초자아강도와 독립성 차원이 높은 부적인 부하량을 보였고 MPDS는 DEP척도가 높은 양적인 부하를 보여 의존-독립차원으로 생각되었다. 제4요인은 지능과 관계가 있는 16PF의 독창성차원과 강인성 차원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였으며 MPDS에는 높은 부하량이 없었다. 이러한 분석에서도 MPDS와 16PF의 이차요인도 3개 요인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의 설명변량은 69.4%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전체논의

신판 MMPI의 MPDS를 경험/합리적 방식으로 새로 구성하여 심리측정적 특성과 내적 타당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대학생집단과 정신과 환자집단 모두에서 내적 일치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게 나왔다. MWB척도의 요인구조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여 구성타당도 면에서도 양호한 편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정상대학생 집단에 실시한 MPDS의 평균이 문항의 갯수에 비해 낮으므로 성격장애집단을 변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격검사인 16PF의 하위척도와 많은 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성격장애 환자의 변별 및 진단과 더불어 정상인의 성격유형이나 정신과 환자의 병전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척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우선 정신과 환자집단의 평균이 다소 높아 외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전에는 개별 척도의 집단변별력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본 검사가 성격의 지속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에 따른 평균점수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척도의 요인구조가 비록 MWB척도의 것과 유사하지만 세번째 요인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척도에서

표 5. MPDS와 16PF 이차요인의 구조분석^a

척도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HST	-.94*	-.06	-.03	.09
NAR	-.86*	-.11	-.36*	.04
BDL	-.08	.85*	.17	.07
ANT	-.06	.52*	.38*	.20
DEP	.43*	.44*	.60*	-.02
CPS	.27	.82*	-.03	.08
PAG	.48*	.59*	.48*	.10
PAR	.29	.83*	.05	.09
STY	.60*	.71*	.14	.09
AVD	.83*	.43*	.17	.02
SZD	.86*	.24	-.08	.05
EXT	-.79*	-.06	-.02	-.09
ANX	.47*	.53*	.53*	.11
TOU	.12	-.14	.04	-.81*
IND	-.39*	.07	-.61*	.26
SUP	.15	-.12	-.74*	.07
CRE	.18	.10	-.08	.88*
아이겐값	7.55	2.47	1.79	1.01
설명변량 (%)	44.4	14.5	10.5	6.0

^a사례수 : 94명 (남 : 72, 여 : 22)

*부하량이 0.30이상임

로 중복되는 문항이 많은데 이런 중복 문항이 인위적인 요인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etzlaff, Gibertini, 1987). 따라서 추후분석에는 중복문항을 제외시킨 후의 요인분석을 포함시켜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정상인들에게서 어떤 성격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지에 관한 연구도 미비하며 더구나 성격장애 유형에 관한 병리적 연구가 별로 없어 실제 우리나라 성격장애유형의 특성들이 DSM-III-R에 분류되어 있는 11개의 유형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혹은 이 모든 유형들이 존재하는 지 조차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격장애와 더불어 정상인의 성격유형에 관한 분류 및 특성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정신과환자 집단에서 평균이 다소 높은 척도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단지 환자라는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연령이나 교육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추후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추후연구에서 좀 더 완성도를 갖춘 척도구성이 이루어지면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변인에 따른 규준을 마련하여 실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MPDS는 지금까지 언급한 검사활용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집단변별을 위한 척도구성 방법으로서의 경험/합리적 방식의 유용성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
이종성 편역(1985). 행동과학연구를 위한 측정이론의 기초. 중앙적성출판사.
염태호, 김정규(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한국심리적성연구소

조선미, 박병관, 안창일, 신동균(1990). MMPI 무선반응태도 탐지척도의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9권, 제1호, 184-19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1).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hird Edition. Washin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hird Edition, Revised. Washin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ron M, Asnis L, Grunen R(1981). The schedule of Schizotypal Personalities (SSP); A Diagnostic interview for schizotypal feature.
Beck, A.T.& Freeman A(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Cattell, R.B.(1966). The scree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ch, 1 245-275.
Cattell, R.B., & Eber, H.(1967). The 16 Personality Factor Qkuestionnaire. Champaign, IL: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Grunderson, J., Kolb, J., & Austin, V. (1981). The diagnostic interview for borderlinepatients. Am J Psychiatry, 138, 896-903.
Hare, R.(1980). A research scale for the assessment of psychopathy in criminal popu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111-117.
Jacobsberg, L.B., Goldsmith, S. Widiger, T. & Frances, A.J(1989). Assessment of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In

- Wetzler, S.(Ed.), Measuring mental illness: Psychometric assessment for clinicians. American Psychiatric Press.
- Lorr, M., Nerviano, V.J., & Myhill, J. (1985). Structural Analysis of the MMPI and the 16PF. Psychological Reports, 57-587-590.
- McKinley, J.C., & Hathaway, S.R. (1940). A multiphasic personality schedule (Minnesota) : II. A differential study of hypochondriasis. Journal of Psychology, 10, 255-268.
- Millon, T. (1982)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National Computer System.
- Morey, L.C., Blashfield, R.K., & Webb, W. (1988). MMPI scales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A preliminary validation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47-50.
- Morey, L.C., Waugh, M.H., & Blashfield, R.K. (1985). MMPI scales for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Their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245-251.
- Pfohl B, Stangl D, Zimmerman M (1983). Structured Interview for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SIDP, 2nd Ed.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Medicine.
- Retzlaff, P.D., & Gibertini, M. (1987). Factor structure of the MCMI basic personality scales and common item artifac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1, 588-594.
- Spitzer R, Williams J (1985):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SCID-II, 7/1/85). New York Biometric Research Department, New York Psychiatric Institute.
- Wiggins, J.S. (1966). Substantive dimensions of self-report in the MMPI item pool. Psychological Monographs, 80, 22.

STRUCTURAL ANALYSIS OF THE MMPI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16PF : A PRELIMINARY VALIDATION STUDY OF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Byoung-Kwan Park • Jin-Young Kim • Ju-Seon Roh • Chang-Yil Ahn* • Dong-Kyun Shin** • Young-Suk Park***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Hospital ***Ewha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The study newly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MMPI scales for DSM-III-R personality disorders (MPDS) which was developed using a combined empirical/rational strategy, and analyzed the factor structure of these scales to examine the construct validity. The result showed the high internal consistency and the constant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MPDS in a psychiatric patient population as well as in a normal popul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probability of these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 diagnosis be favourable. The similarity betwee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MWB scales and these scales confirmed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se scales. Also, the fact that these scales shared many factors with 16PF suggested the usefulness of these scales as scales for normal personality types.

<부록>

<부록> MMPI 성격장애척도의 문항번호와 문항내용 및 채점방향

척도	문항번호	문항내용	채점방향
HST	57.	나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예
	70.	이성관계에서 소극적인 편이다.	아니오
	90.	떠들썩하게 재미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가기를 좋아한다.	예
	107.	나는 늘 즐겁다.	예
	126.	연극활동을 좋아한다.	예
	171.	모임에서 장기자랑 순서가 돌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아니오
	180.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아니오
	181.	따분해지면 나는 곧잘 신나는 일을 일으키기 좋아한다.	예
	207.	여러가지 놀이와 오락을 즐긴다.	예
	208.	나는 이성과 시시덕거리기를 좋아한다.	예
	227.	내가 자라면 걸어다닌다는 이야기를(혹은 말을)들은 적이 있다.	예
	253.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나는 친할 수 있다.	예
	264.	나는 자신만만하다.	예
	292.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다.	아니오
	304.	학교 다닐때 학생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아니오
	312.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	아니오
	353.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이야기 하고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예
	391.	나는 춤추러 가기를 좋아한다.	예
	449.	단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교적인 모임을 좋아한다.	예
	450.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할 때가 신이 난다.	예
451.	활기있는 친구들 무리에 끼어들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다.	예	
482.	기차나 버스에서 내가 잘 아는 것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예	
547.	파티와 사교를 좋아한다.	예	
NAR	19.	새 직장에 갔을 때 누구와 먼저 친해야 좋을 지를 은밀히 알았으면 한다.	예
	57.	나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예
	70.	이성관계에서 소극적인 편이다.	아니오
	86.	정말 자신이 없다.	아니오
	99.	떠들썩하게 재미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가기를 좋아한다.	예
	122.	나도 남들 만큼 유능하고 똑똑한 것 같다.	예
	150.	놀이(또는 게임)에서 자기보다는 이기고 싶다.	예

163. 쉽게 지치지 않는다. 예
171. 모임에서 장기자랑 순서가 돌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아니오
173.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예
180.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예
253.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나는 친할 수 있다. 아니오
257. 내가 하는 일은 대개 성공할 것으로 본다. 예
269. 쉽게 남들이 나를 무서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재미로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한다. 예
287. 친구들에 비하면 겁이 없는 편이다. 예
292.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오
304.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아니오
318. 나의 일상생활은 재미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예
321. 나는 쉽게 당황하는 편이다. 아니오
353.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이야기 하고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예
391. 나는 춤추러 가기를 좋아한다. 예
415.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418. 때로 나 자신이 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오
진지한 주제에 관한 강연에 즐겨 참석한다. 예
517. 나는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오
520. 대개의 경우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예
521. 여러사람 앞에서 내가 잘 아는 것에 관해 의견을 예
547. 파티와 사교를 좋아한다. 예

- BDL 39. 가끔 뭔가를 때려 부수고 싶은 때가 있다. 예
75. 가끔 화를 낸다. 예
96. 집안 사람들과 말다툼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아니오
99. 떠들썩하게 재미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가기를 좋아한다. 예
114. 가끔 머리가 팍 조이는 것 같다. 예
129.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토라졌는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때가 많다. 예
137. 우리 가정은 내가 아는 다른 가정처럼 즐겁게 지낸다. 아니오
139. 때때로 나 자신이나 남을 꼭 해치고 말 것만 같다. 예
145. 때때로 나는 주먹다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 예
154. 경련이 일어나 본 적이 없다. 아니오
158. 나는 잘 운다. 예
181. 따분해지면 나는 곧잘 신나는 일을 일으키기 좋아한다. 예
208. 나는 이성과 시시덕거리를 좋아한다. 예
215. 술을 지나치게 많이 하기를 좋아한다. 예
231. 성(性)에 관한 이야기 하기를 좋아한다. 예

234. 쉽게 화를 내지만 바로 풀린다. 예
251. 잠시 정신이 깜박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가 있다. 예
266. 일주일에 한두번은 몹시 흥분하게 된다. 예
293. 누군가가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고 있다. 예
299. 남들보다 더 민감한 것 같다. 예
320. 나는 성(性)에 관한 꿈을 많이 꾀다. 예
333.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예
336.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낸다. 예
349. 나는 이상하고 기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355. 사랑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을 즐길 때가 종종 있다. 예
379. 갑자기 우울해질 때는 거의 없다. 아니오
381. 성질이 급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예
386.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게 하고 싶다. 예
399.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아니오
407. 대체로 차분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아니오

- ANT 21. 때때로 집을 몹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예
45. 언제나 참말만 하지는 않는다. 예
49. 법률 중의 대부분은 없애 버리는 편이 낫겠다. 예
80. 때때로 동물을 못 살게 군다. 예
93. 사람들은 대개 잘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라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예
118. 학교 다닐 때 말썽을 일으켜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가끔 있다. 예
120. 집에서의 식사예절은 밖에서 남과 함께 식사를 할때 만큼 좋지는 않다. 예
135. 극장에 표를 안내고 들어가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것 같다. 예
139. 때때로 나 자신이나 남을 꼭 해치고 말 것만 같다. 예
145. 때때로 나는 주먹다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 예
146. 방랑벽이 있어서 떠돌아 다니거나 여행을 해야 즐거워진다. 예
205. 뭔가를 슬쩍 훔치지 않고는 못배기는 때가 가끔 있었다. 예
215.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다. 예
218. 동물이 고통 받는 것을 보아도 아무렇지 않다. 예
224. 나의 부모는 내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마땅치 않게 보는 때가 종종 있다. 예
226. 가족 중에 나를 매우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다. 예
294.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전혀 없다. 아니오
298. 여러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하나의 의견에 합의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아니오
302. 성(性)적인 행동 때문에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다. 아니오
311. 어려서 한때 줌도독질을 한 적이 있다. 예

	316. 누구라도 곤경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예
	378.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오
	437. 법에 걸리기만 않는다면 법을 슬쩍 피해가는 것도 무방하다.	예
	456.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460. 술을 절제한다(또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	아니오
	475. 궁지에 몰릴 경우 나에게 불리하지 않는 사실만을 말한다.	예
<hr/>		
CPS	10. 목에 무언가 꽂 막힌 것 같은 때가 많다.	예
	47. 아무 까닭없이 일 주일에 한두번 온몸이 갑자기 화끈거릴 때가 있다.	예
	64. 한가지일에 너무 매달려서 남들이 참다 못해 화를 내는 때가 있다.	예
	100.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해야 될 지 모르겠다.	예
	147. 결심을 빨리 못했기 때문에 자주 손해를 보곤 한다.	예
	148. 내가 중요한 일을 할때 누가 조언을 구하거나 방해하면 참지 못한다.	예
	186.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손이 떨릴 때가 많다.	예
	217.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을 때가 많다.	예
	327. 나의 부모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따르도록 강요할 때가 종종 있었다.	예
	338. 남들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았다.	예
	340. 너무 흥분되어서 잠을 이루기가 힘들 때가 더러 있다.	예
	343.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생각해 본 후에야 행동에 옮긴다.	예
	346.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의 갯수를 세어보는 버릇이 있다.	예
	352.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한다.	예
	357.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한 때가 여러번 있었다.	예
	368. 나중에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을 피할 때가 가끔 있다.	예
	390. 남이 잘못하는 것을 막아 주려다가 오해를 받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자주 있었다.	예
	404. 선의로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 사람들도 내 뜻을 오해할 때가 많다.	예
	406. 나보다 별로 낫지 않으면서도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들을 흔히 본다.	예
	408. 내 감정을 숨기는 때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예
	461. 일단 시작한 일은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다.	예
	493.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일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이 더 좋다.	예
	499.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걱정하는 때가 있다.	예
<hr/>		
PAG	24.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예
	41. 업무를 못내서 며칠, 몇주 또는 몇달동안 일을 못하는 때가 있다.	예
	79. 나는 기분이 쉽게 상하지 않는다.	아니오
	86. 정말 자신이 없다.	예

109. 거만하게 으시대는 사람이 청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도 반대로 하고 싶어진다. 예
117. 사람들은 대개 들킬까봐 두려워서 정직할 뿐이다. 예
147. 결심을 빨리 못 했기 때문에 자주 손해를 보곤 한다. 예
159. 무엇을 읽어도 전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163. 쉽게 지치지 않는다. 아니오
164.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아니오
238. 너무 안절부절해서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할 때가 있다. 예
259.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 예
260.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 예
267.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맞은 이야깃거리를 찾기가 어렵다. 예
292.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예
309. 나도 남들만큼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다. 아니오
328. 한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335. 한가지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예
338. 남들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았다. 예
411.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 나 자신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예
421. 가족 중에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 예
438. 싫은 사람이 잘못해서 야단맞을 때 나는 속으로 좋아한다. 예
447. 나는 반대하는 사람을 꺾기 위해서 가끔억지를 쓰는 편이다. 예
536. 누가 나에게 재촉하면 화가 난다. 예
549. 위기나 곤경에 부딪히면 회피한다. 예
560.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잘 잊어버려서 괴롭다. 예

- PAR 19. 새 직장에 갔을때 누구와 먼저 친해야 좋을지를 은밀히 알았으면 한다. 예
28. 나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예
35.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훨씬 더 성공했을 것이다. 예
110.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예
121. 누군가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예
123.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듯하다. 예
136. 남이 나에게 잘 해 줄 때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한다. 예
157. 나는 이유없이 벌 받은 때가 자주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
182. 미쳐버릴까봐 두렵다. 예
190. 머리 아플 때가 거의 없다. 아니오
197.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예
200.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210.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다. 예
212.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내가 컸는데도 어린애 취급을 한다. 예
241. 혼자 속으로만 간직해야 할 일들이 자주 꿈에 나타난다. 예
244. 내가 일하는 방식은 남에게 오해를 잘 받는다. 예
247. 가족 중 한두 사람에게 대해서 질투를 느낄만한 이유가 있다. 예
265.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
278. 종종 낯선 사람들이 나를 훔잡을 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 예
284. 분명히 남들이 내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297. 성(性)에 관한 생각으로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301. 산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긴장의 연속이다. 예
303.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서 말도 꺼낼 수 없다. 예
317. 남들보다 더 예민하다. 예
325. 가족 중의 누가 한 일로 해서 아주 무서웠던 적이 있다. 예
337. 거의 언제나 불안하다. 예
339. 죽고 싶을 때가 있다. 예
345.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예
347. 나를 정말로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오
351. 잠시라도 집을 떠나 여행을 해야 할 때면 불안하고 산란해진다. 예
358. 좋지 않은 불길한 말들이 떠올라서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예
364.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모욕적이고 야비한 말을 한다. 예
368. 나중에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사람을 피할 때가 가끔 있다. 예
377. 모임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앉아 있거나 단 둘이서만 있는 때가 많다. 예
414. 한번 실망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예
431.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예
433. 상상속의 친구가 있었다. 예
434. 자동차 경주자가 되고 싶다. 예
442. 걱정때문에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있다. 예
447. 나는 반대하는 사람을 꺾기 위해서 가끔 억지를 쓰는 편이다. 예
448.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괴롭다. 예
450.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할 때가 신이 난다. 예
468. 화를 잘내고 토라지기를 잘해서 미안할 때가 많다. 예
469. 단지 자기들이 먼저 생각해 내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좋은 생각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흔히 본다. 예
555. 내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예
564.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남들이 대단치 않게 여기면 쉽게 그만두어 버린다. 예

DEP 82. 나는 언쟁을 하면 쉽게 지고 만다. 예

86. 정말 자신이 없다. 예
120. 집에서의 식사는 밖에서 남과 함께 식사를 할때 만큼 좋지는 않다. 예
122. 나도 남들 만큼 유능하고 똑똑한 것 같다. 아니오
141. 나는 대개 주위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예
142.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예
169. 돈을 취급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아니오
170.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아니오
178. 내 기억력은 괜찮은 것 같다. 아니오
185. 나도 남들 만큼 귀가 밝다. 아니오
257. 내가 하는 일은 대개 성공할 것으로 본다. 아니오
- 내가 하는 일은 대개 성공할 것으로 본다. 아니오
260. 학습 능력이 부진했다. 예
262. 좀 더 잘 생기지 못한 것을 속상해 하지 않는다. 아니오
264. 나는 자신만만하다. 아니오
328. 한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357.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한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예
375. 매우 기분이 좋고 활기가 있을 때라도 울적한 사람을 보면 나 역시 기분이 상하게 된다. 예
418. 때로 나 자신이 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
431.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예
443. 내가 잘 할 것 같지 않다고 남들이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도 쉽게 그만두어 버린다. 예
509. 너무 수줍고 내성적이어서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
517. 나는 잘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예
531. 내가 이미 결정한 것도 다른 사람때문에 쉽게 잘 바꾼다. 예
549. 위기나 곤경에 부딪히면 회피한다. 예
564.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남들이 대단치 않게 여기면 쉽게 그만두어 버린다. 예

- STY 24.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예
31. 며칠마다 악몽(가위놀림)에 시달린다. 예
40. 시간만 있으면 앉아서 공상이나 하고 싶다. 예
44. 머리가 늘 쭈시고 아픈 것 같다. 예
46. 지금의 내 판단력은 어느 때보다도 좋다. 아니오
50. 내영혼이 가끔 내 육신을 떠난다. 예
57. 나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아니오
76. 항상 우울한 편이다. 예
110.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예
117. 사람들은 대개 들킬까봐 두려워서 정직할 뿐이다. 예

121. 누군가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예
123.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듯하다. 예
136. 남이 나에게 잘 해 줄 때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한다. 예
137. 우리 가정은 내가 아는 다른 가정처럼 즐겁게 지낸다. 아니오
139. 때때로 나 자신이나 남을 꼭 해치고 말 것만 같다. 예
157. 나는 이유없이 벌 받은 때가 자주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
180.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예
197.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예
210.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다. 예
238. 너무 안절부절해서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할 때가 있다. 예
241. 혼자 속으로만 간직해야 할 일들이 자주 꿈에 나타난다. 예
265.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예
267.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맞은 이야기거리를 찾기가 어렵다. 예
278. 종종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흠잡을 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 예
281. 귀에서 웅웅 거리는 소리가 나는 일이 별로 없다. 아니오
291. 누가 나에게 최면을 걸어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 느낀 적이 한두번이 있다. 예
292.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예
309. 나도 남들만큼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다. 아니오
323.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예
333.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예
340. 너무 흥분되어서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더러 있다. 예
345.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자주 있다. 예
348. 예상외로 나는 친하게 구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편이다. 예
349. 나는 이상하고 기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예
352.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한다. 예
356. 남들보다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렵다. 예
358. 좋지 않은 불길한 말들이 떠올라서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예
377. 모임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앉아 있거나 단 둘이서만 있는 때가 많다. 예
403.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아니오
404. 선의로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내 뜻을 오해할 때가 많다. 예
414. 한번 실망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예
422. 가족 중의 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일때문에 창피스러운 때가 있다. 예
431.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예
448.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괴롭다. 예
449. 단지 사람들과 함께있고 싶어서 사교적인 모임을 좋아한다. 아니오
450.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한 때가 신이 난다. 아니오

	479.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아니오
	547. 파티와 사교를 좋아한다.	아니오
	555. 내가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예
AVD	13. 일을 할 때 굉장히 긴장된다.	예
	52. 학교 친구나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편하다.	예
	54. 나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좋아한다.	예
	57. 나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아니오
	79. 나는 기분이 쉽게 상하지 않는다.	아니오
	86. 정말 자신이 없다.	예
	91. 놀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다.	아니오
	95. 가족이나 친지들의 생일을 거의 잊지 않고 챙긴다.	아니오
	99. 떠들썩하게 재미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가기를 좋아한다.	아니오
	142.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예
	163. 쉽게 지치지 않는다.	아니오
	171. 모임에서 장기자랑 순서가 돌아오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예
	180.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예
	201. 수줍음을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207. 여러가지 놀이와 오락을 즐긴다.	아니오
	230.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	아니오
	267.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알맞는 이야깃거리를 찾기가 어렵다.	예
	278. 종종 낯선 사람들이 나를 흠잡을 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	예
	287. 친구들에 비하면 겁이 없는 편이다.	아니오
	292.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예
	304. 학교 다닐때 학생들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예
	305.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예
	309. 나도 남들만큼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다.	아니오
	321. 쉽게 당황하는 편이다.	예
	328. 한가지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예
	344. 길을 걷다가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비켜 갈때가 자주 있다.	예
	353.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이야기 하고 있는 곳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아니오
	357.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한 때가 여러번 있었다.	예
	368. 나중에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을 피할 때가 가끔 있다.	예
	371. 나는 유별나게 수줍어하지는 않는다.	아니오
	377. 모임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앉아 있거나 단 둘이서만 있는 때가 많다.	예

	401. 물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아니오
	412.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을 겁내지 않는다.	아니오
	418. 때로 나 자신이 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
	449. 단지 사람들과 함께있고 싶어서 사교적인 모임을 좋아한다.	아니오
	450.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할 때가 신이 난다.	아니오
	473.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은 피한다.	예
	479.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아니오
	482. 기차나 버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종종 말을 잘 건다.	아니오
	509. 너무 수줍고 내성적이어서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예
	521. 여러사람 앞에서 내가 잘 아는 것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는다.	아니오
	547. 파티와 사교를 좋아한다.	아니오
<hr/>		
SZD	48.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 성가시다.	예
	52. 학교 친구나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편하다.	예
	57. 나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린다.	아니오
	65.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아니오
	73.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아니오
	99. 떠들썩하게 재미있는 모임이나 행사에 가기를 좋아한다.	아니오
	242. 남들보다 신경질을 더 부리지는 않는다.	아니오
	286. 나는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예
	292.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예
	309. 나도 남들만큼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다.	아니오
	312.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싫어한다.	예
	324. 어느 누구와도 사랑을 느껴본 일이 없다.	예
	344. 길을 걸다가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비켜 갈때가 자주 있었다.	예
	377. 모임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앉아 있거나 단 둘이서만 때가 많다.	예
	391. 나는 춤추러 가기를 좋아한다.	아니오
	399. 쉽게 화를 내지는 않는다.	아니오
	435. 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아니오
	449. 단지 사람들과 함께있고 싶어서 사교적인 모임을 좋아한다.	아니오
	450.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들썩할 때가 신이 난다.	아니오
	451. 활기있는 친구들 무리에 끼여들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것 같다.	아니오
	454. 산 속의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다.	예
	473. 될 수 있으면 사람 많은 곳은 피한다.	예
	482. 기차나 버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종종 말을 잘 건다.	아니오
	547. 파티와 사교를 좋아한다.	아니오